

중국의 AI ‘토큰 대출’과 금융지원 변화

미래전략개발부 경제조사팀
이 은 영 (liey@kdb.co.kr)

- ◆ 최근 중국 은행권은 토큰 데이터를 제조업의 전력 사용량처럼 AI 기업의 실제 사업 활동, 성장성 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 ‘토큰 대출’ 상품을 연이어 출시
- ◆ 이는 중국의 AI 육성 정책 및 금융지원이 인프라 구축을 넘어 응용 생태계 조성으로 확장 중임을 시사, 국내 금융권도 AI 응용 생태계 기업에 특화된 상품을 검토할 필요

□ 최근 중국 은행권은 차주 기업의 토큰 데이터를 여신 평가에 활용하는 토큰 대출* 상품을 연이어 출시

* 토큰은 AI가 인간 언어를 이해·처리하는 기술적 단위이자 AI 모델 사용량과 비용 계량 단위이며, 토큰 대출은 AI 기업의 토큰 사용·거래량과 관련 계약액 등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특화 대출

- '26.6월 농업은행 상하이 쉬후이구 지점이 토큰 대출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8.14일 광저우 하이주구에서 중국·중신·광저우은행이 동시에 토큰 대출 출시*
 - * 쉬후이구와 하이주구는 각각 상하이와 광저우 경제의 주축인 행정구이자 첨단 IT, AI 핵심 거점
 - 중국은행은 차주 기업의 토큰 사용량과 관련 계약액을 기준으로 여신한도를 산정, 상품 출시 공개 전인 7월부터 총 2,800만위안(약 58억원)의 여신한도 승인*
 - * 중국은행의 동 상품 여신 한도는 기업당 최대 3,000만위안(약 62억원), 기간은 최장 3년. 기업에 따라 신용대출, 수주금융, 매출채권 질권 설정, 보증·담보 등 결합. 여타 은행은 세부 사항 미공개
- '26.9월에는 베이징 이창 경제기술개발구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이창 기업 토큰 대출’을 론칭하고, 농업·중신·홍업·베이징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이 참여
 - 동 지역 소재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 AI 운영서비스 기업 등을 대상
 - 1차로 약 20억위안(약 4천억원)의 여신한도 승인

중국 은행권의 주요 토큰 대출 상품

시점	은행/지역	특징
'26.6월	농업은행/ 상하이 쉬후이구	공개자료상 최초로 ‘토큰 대출’ 명칭을 사용하는 전용 상품 출시. 토큰 사용량 등을 주요 여신 평가 항목으로 제시
'26.8월	중국·중신·광저우 은행 /광저우 하이주구	인프라-응용-토큰중개·유통기업 등 AI생태계 포괄. 기업에 따라 신용대출, 수주금융, 매출채권 질권 설정, 보증·담보 등 결합
'26.9월	농업·중신·홍업·베이징·민생 화샤은행/베이징 이창	베이징 이창 지방정부가 금융상품 브랜드와 정책 방향을 마련, 6개 은행이 각각 동 지역 소재 기업을 심사해 여신 승인

자료 : 중국 언론보도 정리

□ 토큰 대출은 AI 컴퓨팅 인프라의 구축과 컴퓨팅파워 조달을 지원하는 기존의 '컴퓨팅파워 대출'과 달리 평가 정보, 자금 용도 등에서 구별

* '25년 초 등장, '25.5월 중국은행이 10개 지역에서 '중은 과학기술혁신 컴퓨팅파워 대출'을 동시 출시하고, 38개 기업·기관과 약 80억위안(약 1.6조원) 규모 대출 협약을 체결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

- 토큰 대출은 디지털 운영 정보인 토큰 데이터 등으로 기업의 사업성과 신용을 평가하고 토큰 구매와 사업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AI 모델·응용기업 특화 대출
 - 주요 대상은 대형 AI 모델, 응용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유형 자산과 재무 실적이 부족한 중소형 기업 위주가 될 것으로 판단
- 반면 '컴퓨팅파워 대출'은 주로 설비, 기술력 및 프로젝트 사업성 등을 평가 근거로 삼아 AI 인프라 구축과 컴퓨팅파워 조달 등을 지원
 - 주요 대상은 AI칩, 서버, 데이터센터 건설 등 AI 인프라·하드웨어 기업 위주

□ 지역간 토큰 경제 육성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AI 금융지원은 인프라 확충에서 토큰 사용·응용, 사업화·수익화 영역으로 확대

- 올해 주요 지역들은 AI 수요 진작 및 사업화를 위한 토큰 경제 육성책 발표

'26년 중국 주요 지역의 토큰 경제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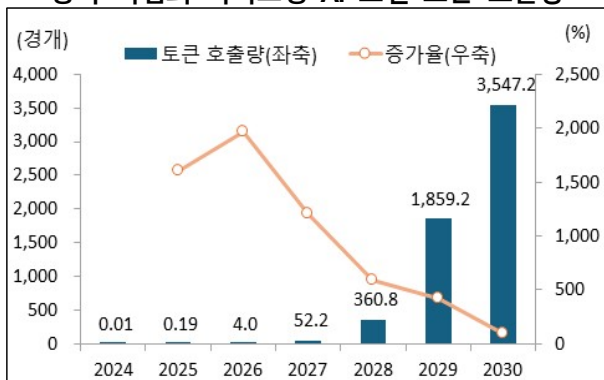
정책 유형	주요 지역	핵심 수단
토큰 경제 순산업사슬 육성	하이주구(광둥성 광저우), 이창(베이징), 장안구(후베이성 우한시), 내몽골	토큰 팩토리, 통합 유통·정산 플랫폼, 거래시장, 응용 사례, 펀드·금융 지원
토큰 소비 비용 보조	상하이, 양저우(장쑤성), 쓰촨성, 하이주구, 장안구	모델·토큰 바우처, API 호출료·AI 에이전트 운영비 보조
토큰 가치평가· 과금·통계기준 마련	베이징, 광둥성 전체, 이창, 내몽골	토큰 품질·호출량·가치 전환 평가 체계 구축, 과금·계량 기준 표준화
토큰 기반 금융지원	하이주구, 안후이성	토큰·모델 대출 출시, 이자 지원 및 데이터·알고리즘 IP 담보 활용
해외진출 지원	광둥성 전체, 하이주구, 내몽골	데이터 국경간 유통 및 모델·토큰 서비스 수출 촉진, 자유무역시험구 활용

자료 : 중국 중앙·지방정부 발표 및 언론보도 정리

- 하이주구, 이창의 토큰 대출 상품은 토큰의 생산·유통·소비·사업화 순과정을 포괄하는 지방정부의 토큰 경제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
 - 하이주구의 토큰 대출 출시는 동 대출 이자 지원(기업당 최고 200만위안)을 포함한 하이주구 지방정부의 '토큰 8개 조치*'와 함께 공개
 - * 정식 명칭은 「하이주구 츠위안(토큰)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조치」로 토큰의 생산효율 개선, 모델 통합·유통, 산업별 응용, 사업자 육성, 비용 보조, 해외 진출 및 전용 금융 등의 지원을 포괄
 - 이창 경제기술개발구는 8월 '토큰 10개 조치' 발표에 이어 9월 토큰 대출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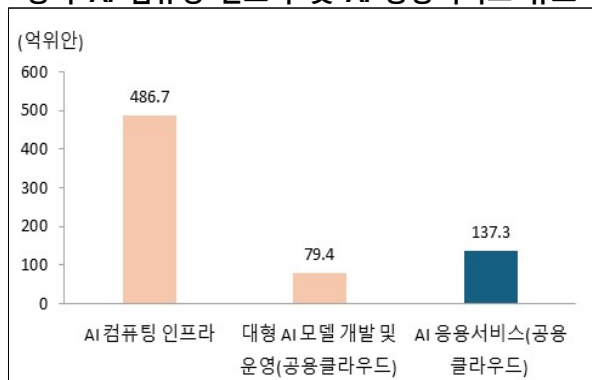
- 이는 금융권 AI 지원이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넘어 중국의 토큰 경제 안착을 위한 AI 활용도 제고 및 사업화 지원 단계로 세분화, 확장될 것임을 예고
 - AI 인프라 공급 확대, 대형 모델 사용 지원 등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의 토큰 사용량은 급증* 중이나, AI 응용서비스 시장 형성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
 - * 글로벌 IT 전문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 서비스형 AI 모델 토큰 호출량은 '25년 약 1.9천조개에서 '26년 4경개, '30년에는 3,547경개로 증가할 전망
 - ** 중국 클라우드 사업자의 AI 응용서비스 규모는 '25년 기준 AI 컴퓨팅 인프라 대비 28% 수준. 다만 대형 모델 훈련·추론 규모는 추월, 고객사들은 '탐색'을 넘어 'AI의 비즈니스 가치' 지불 단계에 진입
 - 일부 지역 AI 인프라의 낮은 활용도*는 AI 수요 및 응용서비스 부족을 시사
 -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 자료('26.5.19)에 따르면, 일부 서부 지역 AI 인프라 유휴율은 50% 이상이며 일부 데이터센터의 장비 설치율은 10% 미만
 -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전문 응용서비스 기업 발굴 및 관리, 수요 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AI 응용 생태계 육성에 착수
 - * '26.8.31일 「AI 응용서비스 제공업체 육성 특별 행동 전개에 관한 통지」 발표

중국 기업의 서비스형 AI 모델 토큰 호출량



자료 : IDC('26.5), "中国AI软件市场半年度追踪, 2025H2"

중국 AI 컴퓨팅 인프라 및 AI 응용서비스 규모



주 : '25년 기준

자료 : IDC('26.5), "中国智算云服务市场(2025下半年)跟踪" 등

□ 중국의 AI 육성 정책 및 금융지원이 응용 생태계 조성으로 확장 중임에 주목, 국내에서도 AI 응용 생태계 기업의 자금 수요에 특화된 상품을 검토해 볼 필요

- 토큰 대출의 등장은 중국에서 토큰이 제조업의 전력 사용량처럼 AI 기업의 실제 사업 활동, 성장성을 평가하는 정량 지표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의미
 - 실제 성패는 토큰 사용량의 객관적인 검증 플랫폼 구축, 토큰 사용량과 차주 기업의 매출·현금 흐름간 연계성을 판단하는 평가 체계 구축 등에 좌우될 전망
- 우리나라 역시 국내 AI 응용서비스 기업에 대한 사업화·수익화 지원을 통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AI 인프라 업체와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필요